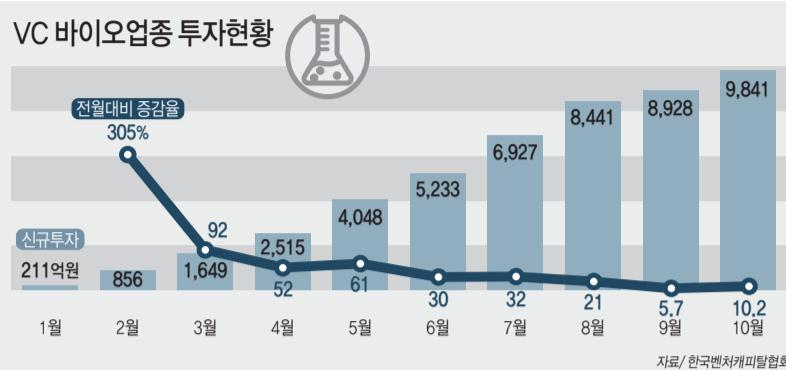




[경제이슈 2019&2020]
위기의 유통업
밀리고 빼기고
“울고 싶어라”
03



K-바이오 살아난다 올 VC 신규투자 1조

〈벤처캐피탈〉

K-바이오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의 신규 투자가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각종 악재로 주춤했던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이다.

◆VC투자 1조원 넘어서

10일 바이오업계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의료 업종에 신규 투자한 금액은 9841억원에 달한다. 지난 한해 신규 투자 총액은 이미 17% 가량 앞지른 수치다.

올해 바이오업종에 대한 VC 신규 투자 금액은 지난 8월 누적 8441억원으로 이미 지난 한해 투자금을 앞질렸다. 이 추세라면 올해 바이오 업종에 쏟아진 VC 신규투자는 1조원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까지 9841억 신규투자
지난해 총액보다 17% 많아

SK바이오팜, CJ헬스케어 등
내년 IPO 대어 줄줄이 대기
바이오 벤처투자 활기 기대

다면, 하반기 각종 악재로 상승폭이 급감했다. 신라젠과 헬리스미스 등 주요 바이오 기대주에 임상3상 실패가 이어지던 지난 9월에는 바이오에 대한 VC 신규투자가 487억원에 그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신규투자 증가율도 5.7%로 처음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점차 회복 추세다. 지난 10월 VC의 바이오업종 신규투자는 913억원으로 전월보다 10% 가량 늘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되찾은 상태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소식이 전해지며, 11~12월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운택 제약전략산업연구원 대표는 “올해 VC 창업이 500개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나면서 바이오업종 투자가 크게 늘었다”며 “지

난 9월 기준으로 신규투자 금액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 올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이 바이오 업종에 투자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0년 기대해도 좋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VC 투자는 지난 2017년 3788억원에서 지난해 8417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1조원을 넘기며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내년에도 이 같은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중인데, 정부의 지원도 활발해진 영향이 크다.

2020년에는 대형 바이오 기업의 상장이 가장 기대가 큰 이벤트다. SK바이오팜은 지난 달 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에 돌입했다. 공모 규모는 1조원, 시가총액 규모는 최소 5조원으로 예상된다. CJ헬스케어도 최근 주간사를 선정하고 IPO를 위한 채비를 시작했다. 시장 분위기가 활기를 뛸 내년 상반기 중 상장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상 가치는 최소 2조원 규모다.

정 대표는 “내년 상반기에는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한템포 늦춰질 수 있다”며 “하지만 다시 활기가 되살아나는 시장 흐름에 따라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는 지난 4월 연간 4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 품 안전관리법’ 역시 내년 8월 시행을 앞뒀다.

연세대학교 노경태 생명공학과 교수는 “아직은 기술이 취약해 올해 몇 차례 실패를 겪었지만, 실패를 잊고 다음 신약을 내세우는 풍토가 생기고 건전한 투자로 단단한 기술들이 상장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산업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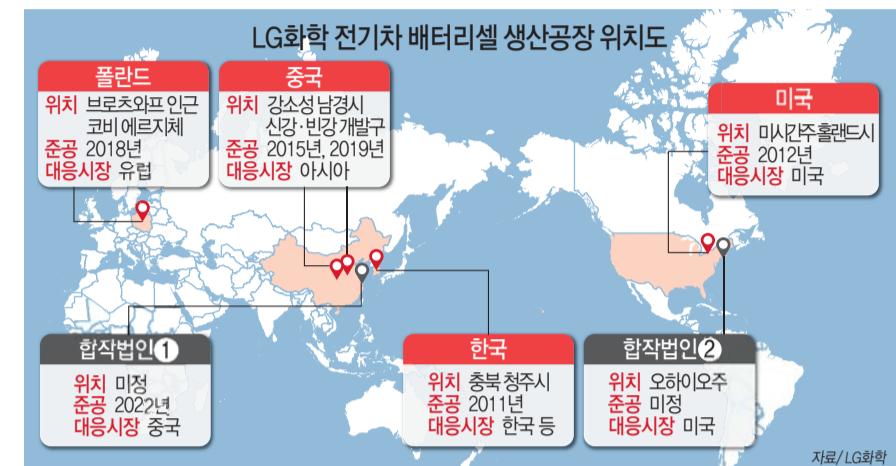
LG-SK-삼성, 글로벌 배터리생산벨트 구축 경쟁

내년 전기차시장 성장 가속화
美·유럽·中 등에 공장 증설
자체 공장에 합작법인까지

내년부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환경 이슈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 생산·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에서 점차 배터리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필수인 배터리의 성장성도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곧 본격화될 ‘배터리 전쟁’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을 기점으로 전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EV(전기자동차)’에 집중할 전망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환경 규제들을 점차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 내 완성차 판매기업은 올해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당 130g으로 제한돼 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내

년부터 95g/km로 27%를 줄여야 한다. 그 이후 2025년까지는 70g/km으로 추가 감축이 의무화된다.

환경 규제에 발맞춰 자동차 업계는 변화에 나섰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아우디는 내년 순수 전기자동차 모델과 PHEV 모델 등 총 12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조문객 밭길 이어지는 김우중 전 회장 빈소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올 재정수지 45조 적자… 구멍난 나라살림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누계 적자폭 통계 집계 후 최대
통합재정수지는 11.4조로 적자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 누계 대비 개선됐다.

올해 10월까지 국세는 작년보다 3조 원 떨 견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 원 턱밑까지 다가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지난 10월 관리재정수지가 11조 5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지출—총수입)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6월(59조 5000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48조 2000억원)과 8월(49조 5000억원)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이후 9월(57조 원)에 다시 커졌다가 10월에 줄어들었다.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의 경우 관리재정수지가 11조 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하면서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 6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9%) 적자로 편성했다.

정부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예산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 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래 누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누계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석대성 기자